



4면

해고 없는 도시 협약업체 지원
전주시·한전 전북본부 '맞손'

전주매일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음 9월 7일) 제26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공공의대 신설 반대” 전북대 병원장 ‘뭇매’

전북도의회 환복위, 발언 철회·도민 사과 촉구
“도민·농어촌 주민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규탄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2일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규탄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규탄하며 “발언철회와 함께 국민과 도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국감장에서 발언은 기존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켜 내려는 사적 이익이 내포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의원들은 특히 “조 병원장의 ‘공공의대신설 반대’ 발언은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전북도민과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솔한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현재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분반(분반)과’가 없는 곳이 3개(완주, 진안, 부안)이나 되

고, 외래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곳도 4개(군무주, 장수, 임실, 순창)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와 장수, 임실, 고창 등 4개 군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이고 김제시와 완주군은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며, 9개 시군(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응급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등 전북지역 대부분의 시군민들이 적절한 필수 의료자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결과 비인간적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인데도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장인 전북대병원장이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해야 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는 입장을 밝히는 커녕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유지·발전 등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거점의료기관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져 있다’면서 ‘공공의대가 필요없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환복위 이명연 위원장은 “전북대병원장이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공의대 설립까지 반대하면서 명분없는 이익을 추구하면 재앙이 초래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용기·사회적연대”

김승수 전주시장, 고려대서 ‘2020 한국노동사회포럼’ 특강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한국노동사회포럼’에 강사로 참석해 해고 없는 도시 전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특강에서 “전주시민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우리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맞섰다”면서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 정책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을 도입한 배경과 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전주한옥마을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건물주들을 만나 설득을 한 끝에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해고 없는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들까지 힘들어져 근로자 해고를 막는 게 현안으로 대두됐다”면서 “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업체들을 설득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79개 사업장으로 시작

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체결 업체는 현재 1119개까지 늘어났다. 업체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전주시는 이들 업체에 ▲고용유지 경영안전 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도래 기업 이차보전 연장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방세(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유예 등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등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지역



22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한국노동사회포럼에 강사로 참석해 해고 없는 도시 전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해고 없는 도시 정책에 대

해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연대도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20 한국노동사회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노동사회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3일까지 열린다. 김승수 시장은 새로운 노동사회 구축을 위한 지자체 역할이라는 스페셜 세션에 특별 초청돼 강연을 했다.
김 시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업체 노사 등 시민들의 사회적 연대가 중요했다”면서 “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안전한 여행지
도내7곳 어디?

김제 ‘망해사’ 등 추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관광객 밀집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가을 비대면 관광지 7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에 선정된 7곳은 ▲고창 ‘운곡 탐사르 습지’ ▲군산 ‘비응마파지길’ ▲김제 ‘망해사’ ▲무주 ‘구룡동어사길’ ▲부안 ‘출포만갯벌생태공원’ ▲익산 ‘용안생태습지’ ▲진안 ‘부귀메타세쿼이아길’ 이 등이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라북도 비대면 관광지 7선은 유명 단풍명소나 기존에 많이 알려진 관광지가 아닌 소규모로 거리 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최적화된 자연환경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재단은 도민 4,2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전문가 심의를 반영해 접수된 총 9개 관광지 중 7선을 선정했다. 이는 SNS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7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촉을 최소화한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지”라며, “비대면 관광지에서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와 재단 문화관광팀 (063-230-747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